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원안대로 의결

고곡가 시대 대응한 협회차원의 모든 역량 집중할 터

김정인 부회장 후임에 제일사료 윤희운 사장 선임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정호 회장



본회는 지난 2월 2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김정인 부회장의 사임에 따라 제일사료(주)의 윤희운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후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해당회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주)에스씨에프의 이창식 대표이사와 제일사료(주)의 윤희운 대표이사, CJ제일제당(주)의

박운식 상무이사를 변경된 협회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고곡가로 인한 회원사의 경영악화를 감안하여 축산·사료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31억 9,500만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

지난 2006년 말부터 급등하고 있는 세계 사료곡물 가격과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사료



▲ 신임 윤하운 부회장

업계는 물론 축산업계까지 경영상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금년도 주요 사업목표를 협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본회 김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끝이 보이지 않게 치솟는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 해상운임의 폭등, 개방화에 따른 축산기반의 위축, 돈육을 비롯한 축산물가격의 하향기조, 국내사료 시장에서의 업계 간의 치열한 경쟁 등 손으로 쉽게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상황에서 맞는 금년도 정기총회야말로 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중압

감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목표를 「고곡가 시대에 대응한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회원사 경영개선 지원」에 중점을 두고 협회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추진할 금년도 주요 사업목표는 ‘세계적인 고곡가 시대에 대응하여 사료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회원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기본방향 설정은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구매·물류시스템의 혁신 △국내 사료산업의 체질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회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사료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정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확대 △업계 공통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협회 차원의 해결노력 강화 △축산·사료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단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R&D기능 활성화로 정해 놓고 협회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했다. ☐